

창18:17-33 아브라함이 성숙된 모습을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때,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 필요에 눈높이를 맞추고, 성심성의껏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게 성숙된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복된 삶 사는 게 성숙한 건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그렇게 성심성의껏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 주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십시오. 소돔성과 같이 탁한 이 시대, 누가 '하나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친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18:17-33 같이 읽겠습니다.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도)

마치 하나님은 매를 들고선 아버지같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손을 붙들고 말리는 어머니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정확히 읽으면, 오해란 게 금방 드러납니다. 먼저 찾아오신 분도, 찾아와 소돔성에 죄악으로 부르짖음이 넘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신 분도, 그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반응하게 기다리신 분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자 먼저 떠나신 분도 모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판을 짜놓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입니다. 16-2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친구 삼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하나님과 함께 찾아왔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17-19절까지는 아마 마음 속으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인칭이 아니라 삼인칭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1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 당신 하실 일을, 주님은 아브라함과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친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무언가 중요한 일, 재미있는 일, 심각한 일, 나누고 싶은 일 생길 때 찾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게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당신 친구로써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걸 19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사실 “나는 그를 내 친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여호와와의 친구’로 부릅니다. 사41:8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대하20:7 여호사밧의 기도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당신의 가까운 친구로 부르십니다.

친구는 단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과는 단짝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약 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어디서 여러분 판단 자료를 찾으십니까? 누구 말 듣고 따르십니까? 인터넷과 메스ک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과 단짝으로 아삼육이 되어서는, 우리들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가까이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친구로 가까이 할 때라야, 당신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거기 동참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특권적인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거룩한 삶을 향해 지금도 우릴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친구된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역할할 수 있게 판을 짜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어 성경 각주를 보면, "티쿠네 소파림"해 놓고, 마소라 사본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주어와 전치사 목적어를 뒤바꿔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시더니"입니다. 마소라 서기관들이 본문을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해석하면 불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서 있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실 수 있느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원문이 강조하려는 의도가 약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와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신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중보하는 특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 겁니다.

이 사실은 17-19절 하나님의 독백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와우 접속사에 동사가 아닌, 명사 여호와를 써서 강조한 역접)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중보하는 특권을 행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나와 대화하면서 중보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마도 롯을 염두에 두고, 중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50명에서 10명까지 구원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해 하나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한단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지는 잘 몰랐습니다. 중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은 당신이 얼마나 친절하고 공정하신 지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아브라함이 바뀐 것처럼, 기도는 우리들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해, 거기 우리 눈높이를 맞추도록 돕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까지 사악한 도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허락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 말씀은, 과거

애굽에서 사래에게 저지른 과오, 가나안에 돌아와 하갈에게 저지른 과오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으시고 그런 자기를 친구로 대하신 아브라함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단 열명도 의인이 없단 사실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자비롭게 중보를 허락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비록 사악한 자들이라도 멸망되는 걸 기뻐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동시에 자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에게 공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죄없는 사람들도 멸하기로 계획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사실은 분명합니다. 첫째 의인이 열명만 있어도 온 성을 살리시겠다고, 중보자 아브라함의 요청에 동의하십니다. 둘째 롯을 향한 엄청난 자비를 보십시오. 의인이라고는 해도 하는 짓마다 미심적기 짝이 없는 롯도 구해 내십니다. 소돔성이 무너지기 전에 떠나도록 롯의 등을 때밀어 내십니다. 주님이 공정치 못한 것 같다는 유혹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든 묻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은 당신 관점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이해가 늘 우리들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 고집하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치 않으셨다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과 중보자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생략된 채, 그냥 소돔성이 망했더라면 당신의 공의를 확실히 드러내기 어려울 겁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담은 중보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십니다. 당신 역사에 동역자로 동참한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모세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자의 특권을 사용했고, 그 중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의 중보는 죄 짓고 멸망해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종'의 중보도 백성들 죄를 씻고 의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도 우리들의 죄를 씻고 의를 가져온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열만 있었다라도, 아브라함의 중보는 놀라운 결실을 얻었을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한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과 가족들, 구원받아야 할 이웃과 친척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K그룹 식구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 기도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친구는 의로운 삶을 통해 사람을 얻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의인 열 명으로 하나님께 청구할 때, 아브라함은 롯이 있으니까 적어도 소돔성에 의인이 열 짝은 있을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롯 부부, 두 딸과 약혼자들 그리고 두 아들과 약혼자들 정도는 의로울 걸로 짐작했을 겁니다. 허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더라면, 자기 아내와 사위들과 그리고 소돔성 전체를 구했을 겁니다. 롯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구된 삶을 살았더라면, 정말 놀랍고도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린 어떨니까?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변에 의인 열명쯤 있습니까? 그 열 명만 있었다라도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무너진 가정들이 많습니까?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구원 받으려면, 먼저 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그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과 도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이

웃과 지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던 룯 보십시오. 세상 안락과 욕심에 빠져 제 구실을 못하고 사니까, 소돔성은 결국 멸망당하고 자신도 비참한 운명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삶을 변화시켜 의인들이 마을마다, 이웃마다 있게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열 명이 있으려면, 먼저 아브라함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친구가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다른 의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진정 하나님의 친구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겔 22: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부디 주변에 의인 열 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열 명이 얻어질 때, 우리 사는 곳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이웃에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전파되고 그들의 삶에 빛이 비추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중보자로서의 특권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의인들을 늘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